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AP: 4월 미 일자리 공고 1천만건 상회

[미국 금융]

- WSJ: 미 부채 시장, 긴장 조짐 보인다
- CNBC: 미 모기지 수요, 3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져

[고용]

- WSJ: 직원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 물어보니
- SHRM: “미 인력부족 현상, 수년동안 간다”

[미중 무역]

- WSJ: 미국 제조업체, 미중 긴장 고조로 공급망 등 대안 모색
- WSJ: 중국 회복 늦어질 듯... 공장 및 서비스 활동 위축 탓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NYT: 기업들 가격 인상으로 이익 보호하지만 인플레 가중시킨다
- CNBC: American Airlines “수요 증가와 싼 연료로 수익 전망 상향 조정”

[보고서]

- Harvard Business Review: 업무 성과 높이려면 운동해라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AP: U.S. job openings rise to 10.1 million as the labor market stays strong despite rate hikes
4월 미 일자리 공고 1천만건 상회

- 정확하게 미 기업들의 채용 공고는 1천10만건. 예상치 않는 규모다. 연준이 경제를 식히려고 인플레 통제에 시도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탄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.
- 3월에는 취업 공고가 9백70만건이었으나 1천10만건으로 상승해 올해 1월 이래 최대치다. 당초 이코노미스트는 채용공고가 9백50만건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.
- 한편 해고는 감소했지만, 다른 일터에서 더 나은 보수와 근무환경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신호로 사직하는 숫자는 4월에 감소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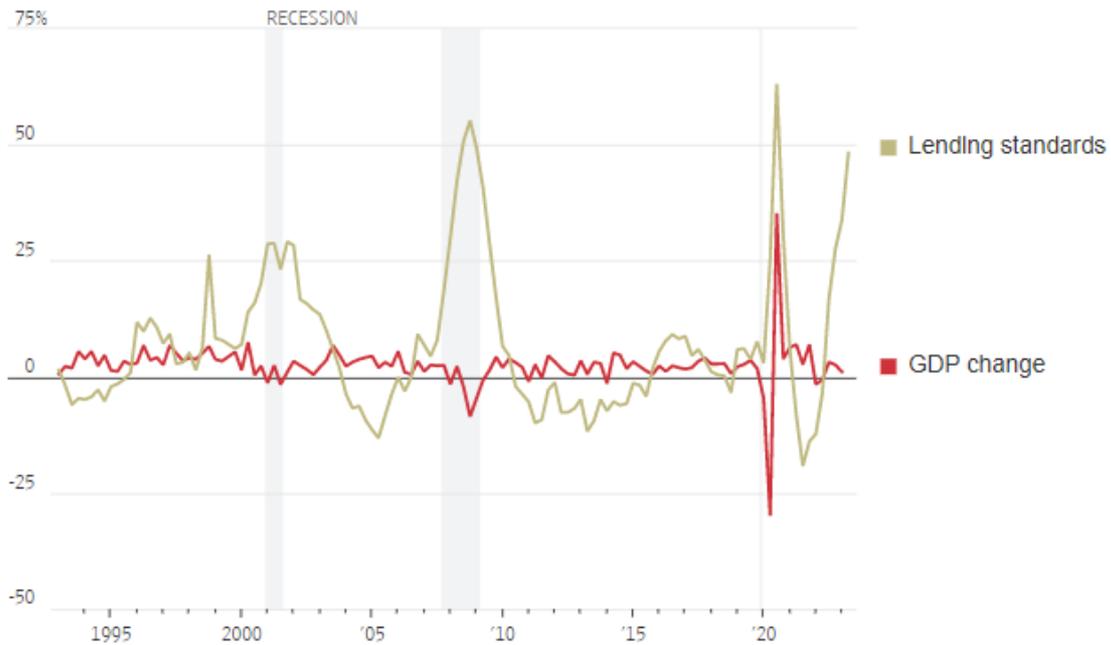
AP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Where Is the U.S. Economy Headed? Follow the Money
미 부채 시장, 긴장 조짐 보인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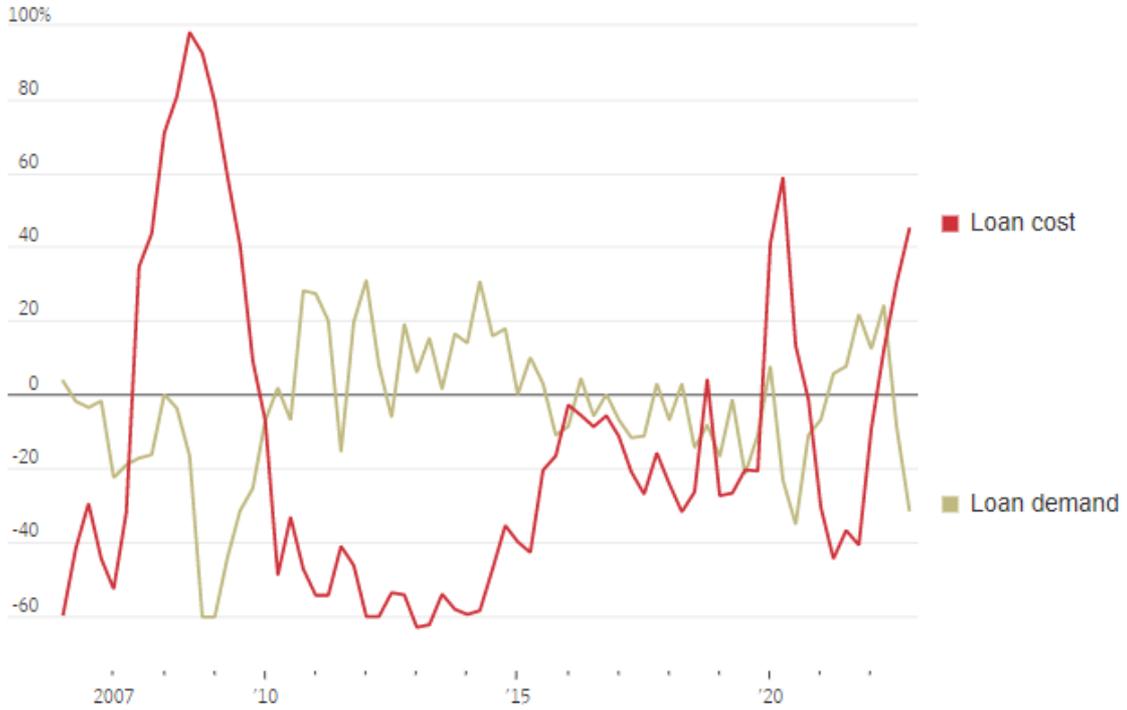
- 주식시장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 부담으로 부채 시장은 삐걱거리고 있다. 채권 시장은 대출 기관이 기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.
- 더욱이 최근 지역 은행들의 소용돌이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. 여기다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방정부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.
-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상 탓이다. 기업체들이나 가게들이 채용을 늘리거나 공장을 짓거나 각종 고지서를 낼 돈이 부족해진 것이다.
- 현재 은행들은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. 동시에 대출자에게 더 많은 담보를 요구 중이다.
- 미국 차입업체의 또다른 큰 신용 풀(pool)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이 차입업체의 비용이 훨씬 커졌다. 투자자들은 위험을 덜 감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신규 회사채 판매는 급감했다. 모기지 보증 채권과 소비자 대출로 뒷받침되는 채권의 판매도 마찬가지로.

U.S. bank lending standards versus change in GDP



Note: Percentage of bankers tightening lending standards. Averages responses across corporate, consumer and commercial real-estate loans. GDP change is over previous quarter and seasonally adjusted at annual rates.
Source: Federal Reserve

Corporate loan cost versus demand, percentage change from the previous quarter



Sources: Ares Management, Federal Reserve

WSJ 기사

CNBC: Mortgage demand drops to the lowest level in three months
미 모기지 수요, 3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져

- 30년 모기지 계약 이자율은 지난주에 6.91%로 그 전주 6.69%보다 올랐다.
- 지난주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 것.
- 모기지율이 오르다보니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건수는 같은 기간 3% 감소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관에 비해 31%가 줄어든 것이다.
- 채용자 신청도 높은 이자율로 감소했는데 주택 구매 수요의 경우 매물 부족때문에 계속 제약을 받고 있다.

CNBC 기사

[고용]

WSJ: We Asked Workers Why They're Not Coming Back to the Office
직원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 물어보니

- **비용 증가:** 사무실로 복귀한 직원은 식사나 출퇴근으로 인해 매달 수백에서 수천 불을 지출한다. 때문에 직원들은 복귀를 주저하고 있다.

- **부모의 라이프 불균형:** 원격 근무가 사라지면 수많은 부모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될 것이라고 근로자들은 말한다. 아들이 있는 Meghan Skornia는 "평일에 사무실로 출근했다면 주말에만 아들과 있을 수 있다"고 말했다.
- **감정 노동:** 어떤 근로자들에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감정 노동이다. 큰 키를 가진 흑인 남성인 Kenneth Thomas는 타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신경 쓰게 된다고 하며 이런 것이 사무실 근무를 지치게 한다고 말했다.
- **생산성 저하:**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진다. Ryan Koch는 "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"며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출퇴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.

WSJ 기사

SHRM: Labor Shortages Forecast to Persist for Years "미 인력부족 현상, 수년동안 간다"

- "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통계적인 변동과 고령화 현상을 보면 미국 같은 국가들은 계속해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며 수년동안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"이라고 Indeed의 선임 경제학자 Svenja Udell은 밝혔다.
- 그는 지속적인 이민이 없고, 근로자 유치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은 몇년간 장기적인 인력 수요를 채우는 충분한 근로자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.
-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내 15세~65세 근로자층은 향후 10년이 되면 3% 줄어들 것이라는 것. 이런 추세는 향후 10년 이상 계속된다. 코비드가 사라지면서 채용의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건 오산. 여기다 뿌리깊은 공급망 문제로 고용 관련 공급 수요는 계속 차이를 보일 것이다.
- ADP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Nela Richardson는 "일자리를 잡는데 물리적 이동성의 중요성이 줄어들며 원격 근무가 대체될 수 있다"고 밝혔다. 원격 근무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.
- 이 기사는 다소 오래됐으나 고용 관련 장기적인 관점을 전망하고 있다.

SHRM 기사

[미중 무역]

WSJ: U.S. Manufacturers Seek China Alternatives as Tensions Rise 미국 제조업체, 미중 긴장 고조로 공급망 등 대안 모색

- 일부 미국 제조업체들이 중국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.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 공급망을 계획하거나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고하고 있다.

- 중국 대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이 Bain & Co.(중국 지점)의 직원들을 심문하고, Mintz Group(베이징 사무소)를 급습했기 때문이다.
- 또한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주요 기업들에게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했다.
- 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과 완제품 부품 생산 능력으로 중국을 이길 국가는 없다고 토로한다. 또한 중국의 공급업체 네트워크는 다른 국가에 없다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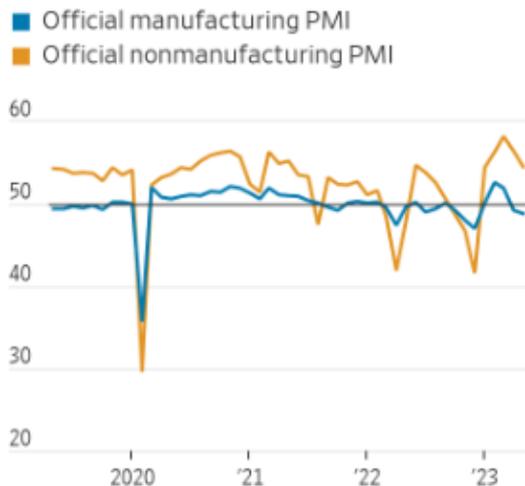
WSJ: China's Recovery Slows Further as Factory, Services Activity Pulls Back

중국 회복 늦어질 듯... 공장 및 서비스 활동 위축 탓

- 중국 공장 활동이 두 달 연속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 성장세까지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.
- 중국 제조업 활동에 대한 구매관리자지수는 4월 49.2에서 5월 48.8로 하락했다. 두 달 연속 50선 아래에 머무른 것이다.
- 5월 서비스업 활동은 전월 대비 위축 되었다. 현재 경기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 위축으로 중국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.
- 중국 국가 통계국은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공식 지표가 4월 56.4에서 5월 54.5로 하락했다고 이번주 수요일에 밝혔다. 이 지표에는 서비스 및 건설 부문이 포함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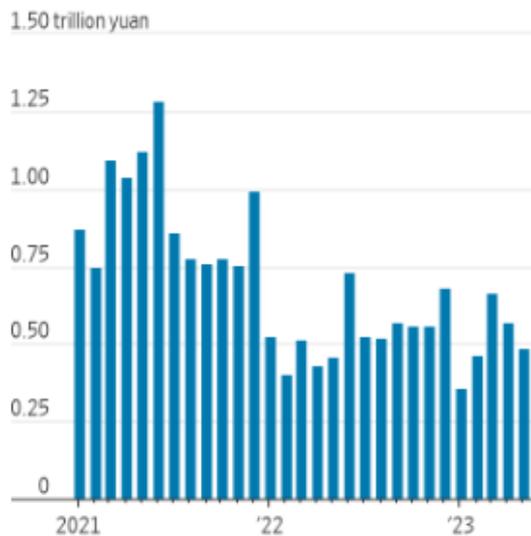
Losing Steam

Measuring PMIs



Note: A reading above 50 indicates expansion while below 50 indicates contraction
Source: China'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

Monthly home sales of China's top 100 developers



Note: 1 billion yuan=\$140.7 million
Source: China Real Estate Information Corp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NYT: Companies Push Prices Higher, Protecting Profits but Adding to Inflation**기업들 가격 인상으로 이익 보호하지만 인플레이션 가중시킨다**

- 최근 몇 달 동안 석유와 운송, 식재료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.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.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가격을 빠른 속도로 인상하고 있다.
- 몇몇 기업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으며, 당분간 가격을 계속 인상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이 전략으로 기업들은 이익을 유지시키고 있다. 그런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물가 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.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 한다.
- Société Générale의 글로벌 전략가인 Albert Edwards는 기업의 수익률을 언급하며 “기업들은 단순히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증가를 전가하고 이를 이익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- 예시로 PepsiCo는 올해 2월 추가 비용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인상했다. 또한 올해 4월 말 스낵과 음료 전반 평균 가격을 16% 인상했다. 이 회사는 작년 4분기에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수익률을 높였다.

NYT 기사

CNBC: American Airlines raises profit forecast thanks to stronger demand and cheaper fuel**American Airlines “수요 증가와 싼 연료 덕분에 수익 전망 상향 조정”**

- 아메리칸 항공은 높은 여행 수요와 낮은 연료 가격 덕분에 2분기의 조정된 수익 전망을 높였다. 1.20~1.45달러에서 1.40~1.64달러로 주당 수익이 조정되었다.
- 이 항공사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~3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 이는 기존 예상치인 4% 감소보다 개선된 것이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Harvard Business Review: To Improve Your Work Performance, Get Some Exercise**업무 성과 높이려면 운동해라**

- 요약: 약 200명의 영국인과 중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10일동안에 걸쳐 신체 활동이 직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했다. 연구진은 신체 활동을 늘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에 대해 설명한다.

-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의 성인이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. 실제로 2001년 이후 신체 활동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.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들보다 두 배 더 심각하다.
- **다음 날 업무 성과와 건강 개선 가능:** 신체 활동으로 즉시 얻을 수 있는 것은 1) 양질의 수면 2) 에너지 및 활력과 관련된 정서적 자원 3) 정보 처리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작업 집중력이다.
- **직무 자기 효능감(self-efficacy) 형성 가능:** 직무 자기 효능감은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말한다. 이를 통해 질 높은 수면과 업무 집중력을 통해 증폭 된다.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동기 부여와 능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.
-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1) 매일 신체 활동을 하는 습관 기르기 2)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3) 일단 움직여 보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.

Harvard Business Review 원문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"美 연준 매파, 금리 추가 인상에 "멈출 이유 못 봐"

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발언...리치먼드 총재는 "수요 냉각 증거 찾고 있어"
FFR선물시장서 내달 0.25%p 추가인상 전망(65.3%)이 동결(34.7%) 앞서

미국 기준금리가 다음 달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,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연준·Fed)의 매파(통화긴축 선호) 인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내놨다.

30일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(연은) 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(FT)와 인터뷰에서 "(금리 인상을) 잠시 멈춰야 할 납득할만한 이유를 정말 보지 못했다"고 말했다.

또 "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당분간 유지해야 할 납득할만한 논거를 더 볼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